

교통영향평가 무시한 도로 개설 주민 반발

동구 계림동 도심 재개발구역 도로 폭 '10m 확장' 못미쳐 기존 도로 폐쇄 뒤통스 알리 주민 1172명 반대 청원서

광주 동구청이 도심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교통영향평가의 결과대로 도로를 개설하지 않아 주민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기존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마을 도로 역시 주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폐쇄하기로 결정하면서 주민들이 집단 청원서를 제출하는 등 논란이 되고 있다.

5일 광주 동구에 따르면 계림교회 옆으로 난 폭 8m·길이 90m 직선 구간 마을도로가 사유지에 편입돼 지난달 말 이용 협의가 끝났다. 동구는 계림 5-2구역 재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계림동 일원을 'T'자로 관통하는 폭 17m 도로를 개설하고 있는 중이다. 문제는 지난 2015년 교통영향평가에서 이 신설도로와 기존도로를 연결하는 구간을 기존 6m에서 3~4m 넓혀 폭 10m로 확장하기로 했으나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동구청은 연결구간의 토지 측량 과정에서 일부 건물과 시설물 등이 도로를 침범해 계획대로 도로를 넓히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도로 폭원은 교통영향평가 10m에 못미치는 8~9m

에 불과할 전망이다. 여기에 나머지 연결구간은 폐쇄하기로 하면서 주민들의 불편은 불가피해졌다. 당초 논의 과정에서는 폐쇄구간을 푸른길로 조성해 보행전용도로로 하기로 했으나 T자형 도로 부지에 교회 땅이 포함되면서 동구청이 토지를 맞교환하는 방식으로 계림교회에 넘겨버렸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변경안에 대한 설명하는 자리도 없었다는 것이 주민들의 주장이다. 주민들은 4일 "신설도로 연결 구간이 좁아 트럭이나 승합차, 버스 등이 교행할 수 없어 당장 생계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교통사고 위험도 상존하게 된다"며 1172명의 서명을 받아 '계림교회 옆 폐도

결사반대 청원서'를 동구청에 제출했다. 주민 대책위원회 관계자는 "마을도로 폐쇄에 주민 합의가 있었다고 하는데 일부 자치위원회와 재개발 조합 쪽 사람들만 모아 놓고 진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동구는 곤혹스러우면서도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동구 관계자는 "동구는 재개발-예산-도로건설 담당 부서가 참여하는 전담팀(TF)을 꾸려 우회로 폭을 넓히고 경사도는 낮추는 대안을 검토 중"이라며 "우회로 개선 토지 매입에 2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되는데 예산 확보가 당장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영락공원에 어린이 추모동산 '나비공원' 개원

광주도시공사(사장 노경수)가 서울 공관으로, 총면적 800㎡에 산골짜기와 이어 국내 두 번째로 영락공원에 어린이 전용 추모동산인 '나비공원'을 최근 개원했다. <사진> '나비공원'은 어린나이에 생을 마감한 부모의 슬픔과 추억을 어루만지는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 5월까지 모집

최대 100만원 시비 지원 원, 시비 1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어, 신청 기구는 292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시는 3kw 규모 태양광을 기준으로 150여 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상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 대장상의 기존 또는 신축주택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다. 신청은 1차 3월 11~29일, 2차 5월 13~31일 등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시는 신청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전문 시공 업체로 선정된 참여기업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설치 희망자가 참여기업을 직접 선택·상담 후 신청하도록 했다. 가장 많이 신청하는 3kw 규모의 태양광은 총 설치비 560만원 중 국비 168만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 대중교통 시민모니터단 활동 시작

광주 시내버스·택시 친절도 향상을 위해 운영하는 시민모니터단(빛고을 뺑뺑모니터단)이 3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2011년 출범한 시민모니터단은 시내버스·택시 서비스, 교통시설물 등을 점검하고 불편사항을 발견하면 광주시 누리집 등에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 친절도, 안전운행, 운행실태, 시설물 등 4개 분야 11개 항목을 점검한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빅데이터 활용 학교 주변 위험시설 점검

서석초 등 5개 학교 스쿨존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홍보

광주시는 지난 4일 '제267차 안전점검의 날'을 맞아 서석초 등 5개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주변 위험시설물 및 학생 등·하차점 불안전요인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사진> 이번 행사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재난안전사고 유형별 분석결과를 토대로 스쿨존 내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 및 안전점검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앞서 행정안전부가 최근 5년 간 재난안전사고를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3월에는 도로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도로교통공단이 지난해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원인을 분석한 결과 보



해서는 사회 구성원 모두가 안전한 통학로 조성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생활주변 위험요소를 발견할 경우 즉시 신고해 안전한 광주를 구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시 '2월의 공무원' 지영 주무관 선정

광주형일자리 완성차공장 설립 협약 타결 실무 기여

광주시는 '2월의 공무원' 수상자로 자동차산업과 지영(사진) 주무관을 선정해 지난 4일 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3월 정례회에서 시상했다. 지영 주무관은 1월 말 극적인 타결로 대한민국 최초로 사회적 패러다임을 바꾼 '광주형일자리 완성차공장 설립을 위한 현대자동차와의 투자협약'의 실무자로서 헌신과 기여도를 인정받았다. 특히 현대자동차 투자 유치 초기 단계부터 협상 타결까지 협상 결렬, 이해주체의 반대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강하게 업무를 추진했다. 광주형일자리 완성차공장 투자 유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노동계의 참여가 사업 추진의 전제 조건으로 부각됨에 따라



노동 관련 부서와 실무 협업 시스템 구축을 제안하기도 했다. 지영 주무관은 수상 소감을 통해 "완성차공장 사업 추진이 어려울 때마다 시민들의 따뜻한 질책이 있었고, 성공시켜야 한다는 절실함과 책임감이 컸다"며 "누구 한 사람, 특정 한 부서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한 사업으로 소통과 협업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7일부터 '제1기 광주시민노동학교' 개설

5월 16일까지 매주 목요일...윤종해 의장 첫 강의

광주시가 '노사상생도시'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시민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광주시민노동학교가 개설한다. 시가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 등과 함께 개설하는 '제1기 광주시민노동학교'는 오는 7일 개강해 5월 16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6시30분부터 8시30분까지 2시간 동안 광주시의회 예결위 회의실에서 7강으로 진행된다. 3월 28일, 4월 11일, 4월 25일, 5월 9일 등 5강강의 후 1강으로 윤종해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 의장의 '노동참여의 중요성'을 시작으로, 14일에는 박병규 시 사회연대일자리특보의 '광주형 일자리' 5월 16일 마지막은 이복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

장의 강의가 예정돼 있다. 광주시민노동학교는 노동계를 비롯해 시민의 참여와 이해, 연대를 높이고자 하는 노동계의 바람과 노사상생도시 광주선언에 따라 노사정의 존중과 참여를 통한 지역발전을 추진하고자 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광주시민노동학교' 5회 이상 수강자에게는 시민노동학교장(윤종해 한국노총 지역본부 의장)으로부터 졸업증서가 수여된다. 수강을 원하는 시민은 광주시 노동협력관실(613-1382)이나 (사)광주형일자리연구원(611-8860),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383-3605)로 문의하면 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양시 중동, 근린상가, 회사 사정상 **급매**합니다.

- 광양시 중동 1888-1번지, 근린상가 (중동 락희호텔, 훔플러스 근처)
 - 6층중 4층 전체(401호)
 - 210평(실평 147평, 코너, 전망최고)
 - 모든 업종 오픈가능(스크린골프장, 사무실등등)
 - 감정/시세 -14억
 - 급매 - 8억 8천만원 (일시불 완불시 조정가능)
- 문의. 010-6834-7400

